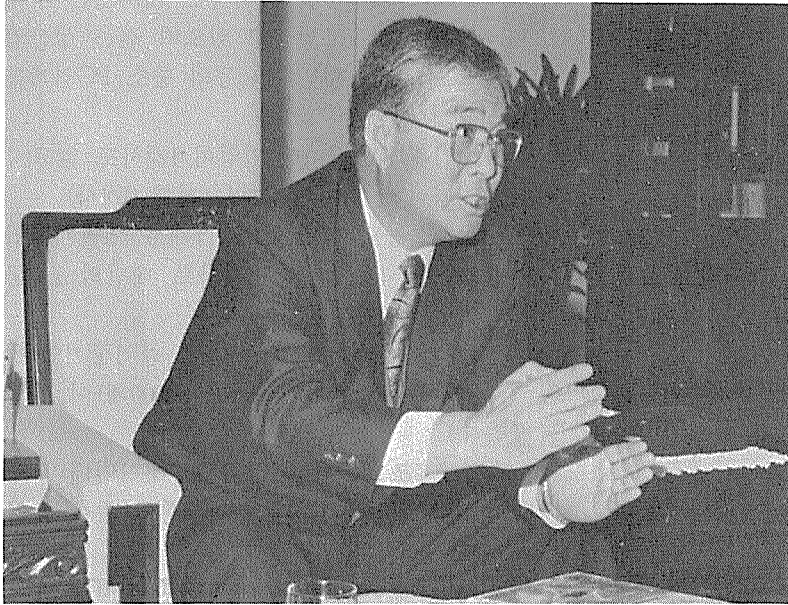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터.....



● 약력 :

- 1942년생
- 64년 육사졸업
- 71년 미국 조지아기술연구소 졸업
박사학위 취득
- 71년 육사 전자공학과 조교수
- 75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8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소장
- 85년 금성전기 기술연구소 소장
- 86년 미국 피코로직사
컨설팅 엔지니어
- 87년 ETRI 부소장
- 91년 7월 전자부품 종합기술
연구소 소장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중소부품업계의 애로기술을 근본적으로 해결 해주기 위해 설립된 정부와 민간공동의 출연 연구소이다. 바로 우리 전자업계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연구소. 본지에서는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김정덕 박사를 만나봤다.

취임소감을 들었다.

“지금까지 계속 기술개발 등 연구기관에서 반도체 부문에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미력이나마 부품 연구개발에 힘써 볼까합니다.

사실 부품은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품목도 다양하고 기술도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첫마디가 겸손을 나타내면서도 확신에 찬듯 힘있어 보였다.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분위기였다.

김정덕 소장은 오늘의 전자산업을 이렇게 평했다.

“우리의 전자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조립산업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보니 그 뿌리가 되는 부품, 소재 및 재료부문은 실제로 신경을 쓰지 못해 겉보기에는 수풀이 우거진 울창한 나무지만 「뿌리없는 나무」 즉 중·저급의 전자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역공까지 겹쳐 그야말로 발판까지 상실할 지경인 것입니다.”

세트산업 중심의 우리 전자산업 30년 역사를 완곡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산업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자부품종합연구소에서 중소 부품업체의 공통애로

기술개발, 기술·장비·연구인력의 공동활용, 부품기술의 시장 적시성 등 3가지의 명제를 원칙으로 기본연구 방향을 잡고 있다.

“워낙 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구개발에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퍼스널 컴퓨터용 부품들은 거의 대만이 휩쓸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 요즘 흔히 들고 다니는 휴대용전화기의 부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부품연구소가 연구·개발해야 합니다.”라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목표설정후 업계(중소기업)를 전문화시키기 위한 공동개발”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기초부품 즉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야 기존의 물질특히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기술수준의 향상은 물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며 평소의 연구개발 전략을 펼쳤다.

연구소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연구인력 문제는 앞으로의 부품연구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막중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부품연구소의 연구인력 확보계획을 보더라도 제1차년도인 금년에 총 66명중 연구직은 50명, 행정직은 16명, 그리고 제2차년도인 '92년에는 총 110명으로 연구직 89명, 행정직 21명의 구성으로 진용을 짜 나아갈 계획으로 있다.

“국내에도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습디만 해외의 우수 연구인력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 기업의 연구경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부품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호소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두뇌들을 외국에 빼앗길 순 없다는 의지가 역력한 김정덕 소장. 그 자신도 외국에서 연구생활을 해 보았기에 이러한 마음은 더욱 절실한 것 같았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우수두뇌 유치가 미진한 현실 속에서 김정덕 소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부품연구소의 앞날 또한 희망적이라 하겠다. 부품연구소의 위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우리 연구소는 정부와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전자업계에서도 많이 출연하고 있죠. 그러나 민간업계에서의 출연금은 거의 투자비로 충당되고 정부에서의 출연금이 투자비의 일부와 연구개발비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의 수탁 연구는 중소 전자부품업계 현실을 볼 때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출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계와 학계의 공동연구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서울대 등의 학계의 연구기관에서 기초부품인 자성재료, 세라믹스, 웨라이트 등의 재료를 개발하면 그 재료를 부품으로의 응용단계 연구를 우리 부품연구소에서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진흥회 등 관련기관과의 관계를 들었다.

“전자공업진흥회 등 관련기관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자진흥회는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전자산업의 진흥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전자진흥회에서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염출이 가능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래지향적인 안목으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업계의 기술수요 예측을 통한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정덕 소장의 말대로 연구개발 자금과 연구개발 수요조사 및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우리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진정 업계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곳곳이 그 본연의 목적과 임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